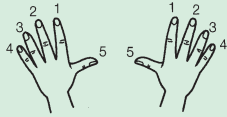




수화를 배워봅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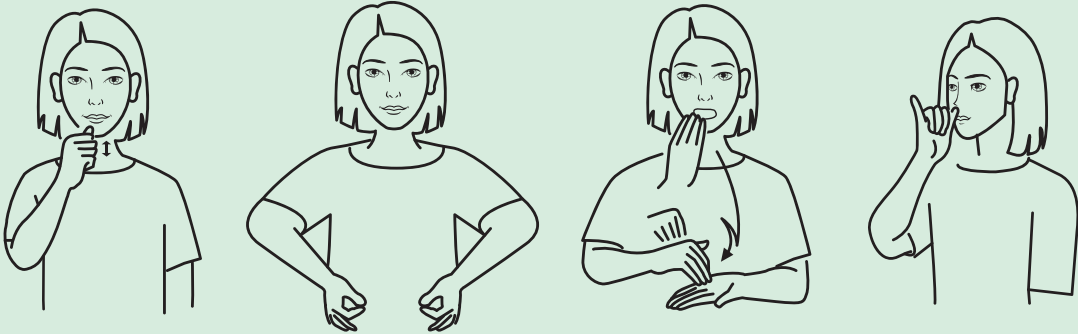


Tip

수화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표정과 동작의 세기, 길이에 따라 나타나는 뜻에 차이가 있습니다. 음성언어에서 음의 고저, 장단 및 강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상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과 동작 등으로 표현한다면 더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감수 **서울아산병원 수화동호회**

신장에 돌(결석)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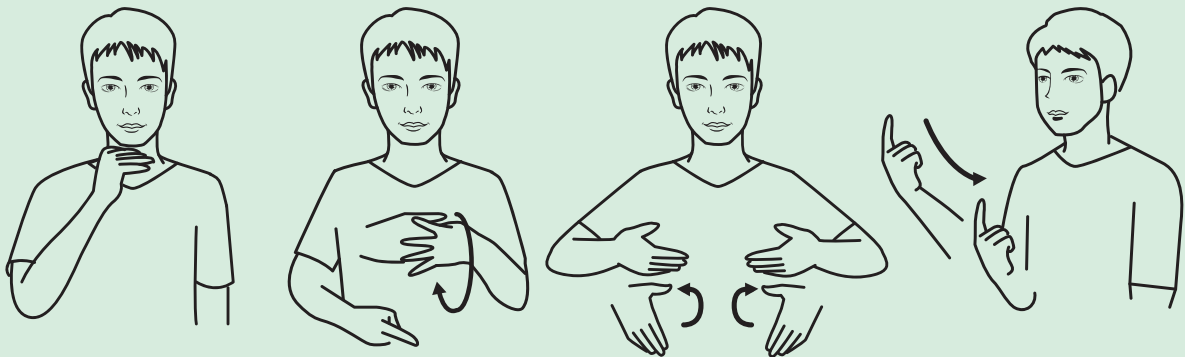


〈신장〉 오른주먹의 5지를 펴서 윗부분을 턱에 대고 상하로 움직인 다음, 두 손 각각 1, 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배의 양옆에 댄다.

〈돌〉 오른손 끝을 약간 구부려서 치아에 댔다가 왼손 바닥에 두 번 내려 댄다.

〈있다〉 4, 5지를 편 오른주먹의 5지 끝을 코 끝에 댄다.

기다리던 봄이 왔다.



〈기다리다〉 오른손을 'ㄱ'자 모양으로 구부려 끝이 약간 안으로 향하게 하여 손가락 등을 턱 밑에 댄다.

〈봄〉 5지만 접고 편 왼손의 1·2·3·4지 둘레를 오른주먹의 1지를 펴서 한 바퀴 돌린 다음, 두 손바닥으로 배를 스쳐 올린다.

〈오다〉 손등이 밖으로 향한 오른주먹의 1지를 펴서 몸 가까이로 당긴다.